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國際通商學碩士 學位論文

중국 서부지역의 FDI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Inflow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Western China

指導教授 崔 成 日



2010年 2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通商行政學科

彭 先 鋒

本 論 文 을 彭 先 鋒 의 國 際 通 商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認 准 함

위 원 장 차 경 자 인

위 원 이 근 재 인

위 원 최 성 일 인

2009년 12월 28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

제2장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발전과 FDI 현황

제1절 중국서부지역의 경제환경과 시장특성	5
1. 서부지역의 비교우위	6
가. 풍부한 자연자원	6
나. 유리한 지리적 조건	8
다. 저렴한 노동력과 시장잠재력	9
2. 서부지역의 제약요건	9
가. 기반시설의 미비	9
나. 열악한 자연환경	10
다. 시장경제의 미정착	11
제2절 서부지역의 투자환경 및 FDI 현황	12
1. 중국 서부지역 FDI 현황	12
가. 중국의 지역별 FDI 현황	12
나. 국가/지역별 대 서부지역 FDI 현황	14
2. 서부지역의 산업별·성/시별 FDI 현황	16
가. 산업별 대 서부지역 FDI 현황	16
나. 성/시별 서부지역 FDI 현황	19
3. 대 서부지역의 FDI 방식	22
가. 중국의 투자방식	22

나. 서부지역 FDI 투자방식	23
------------------------	----

제3장 FDI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FDI의 개념과 유형	26
1. FDI의 개념	26
2. FDI의 유형	27
가. 단독 신규투자	28
나. 자본합작 자본투자	28
다. 국제인수합병(M&A)	29
제2절 FDI의 형태와 결정요인	29
1. FDI의 형태	29
가. 수평적(horizontal) FDI	29
나. 수직적(vertical) FDI	30
다. 다각적(conglomerate) FDI	30
2. FDI의 결정요인	30
제3절 FDI의 경제적 효과	33
1. 긍정적 효과	35
가. 경제성장의 촉진	35
나. 무역규모의 확대 및 국제수지개선	35
다. 고용창출	36
라. 외부효과	37
마. 기술이전	37
2. 부정적 효과	38
가. 자본의 유출문제	38
나. 적대적 M&A의 증가	39
다. 국내 유치산업의 발전 저해	39

라. 시장장악의 문제	39
제4절 FDI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40

제4장 중국 서부지역 FDI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가설의 설정	45
1. 시장추구형 직접투자에 의한 가설	45
2. 생산효율추구형 직접투자에 의한 가설	46
제2절 실증분석모형 및 자료	48
제3절 실증분석 기술통계	51
제4절 실증분석 결과	53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59
------------	----



표 목차

<표 1-1> 동·서부지역 간 경제력 차이	3
<표 2-1> 서부지역의 GDP 및 1인당 GDP	5
<표 2-2> 동부 중부 서부 3대 지역의 자원현상(2007)	7
<표 2-3> 1991-2007년 지역별 FDI 분포(실제투자금액)	13
<표 2-4> 2007년 말까지 동, 중, 서부지역들 FDI를 도입상황	14
<표 2-5> 1982-2007년 서부지역에 대한 상위 15위 국가/지역 상황	15
<표 2-6> 1997-2007년도 서부지역 FDI 산업별 분포상황	17
<표 2-7> 2007년도 서부지역 FDI 산업별 분포상황	18
<표 2-8> 2007년까지 서부 성/시별로 누적된 FDI 이용 상황	19
<표 2-9> 2007년도 서부 각 지역별 FDI 상황	21
<표 2-10> 1998-2007년도 서부지역 FDI 이용형식 상황	24
<표 2-11> 2007년도 서부지역 FDI 방식 상황	25
<표 3-1>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32
<표 3-2> 학자별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연구	33
<표 4-1> 사용변수의 설명	50
<표 4-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량 (90-2007년)	51
<표 4-3>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 (90-2007년)	52
<표 4-4> 실증분석 결과	54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Inflow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Western China

Peng Xian Fe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inflow FDI with panel data of 12 provinces in western region of China for the period, 1990-2007, from the perspective of market-oriented FDI and production-efficiency-oriented FDI. The empirical analysis is performed dividing the whole period into the two sub-periods; before and after the year 1999, when so-called China's western development program launched initially. The empirical findings are following;

First, the empirical results prior to the start of western development program show that the GRDP, the intense of industrialization and university graduates per 10,000 residents have positive coefficient signs at the significant level, while wage level has a negative and significant value. Those estimates are all consent with the hypothesis set up in this thesis.

Second the empirical results using the data after the launching of the western development program show that the GRDP, the intense of industrialization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FDI, while openness in terms of

the ratio of international trade to GRDP and the wage level have negative coefficients. Those results prove the hypothesis of this thesis as a whole. However, the relation between openness and the FDI seems a surprising result. The negative relation shown in empirical results between the two variables may be caused by the features of the FDI firms, which invest in that region to aim mainly for the market expansion to the host regions, rather than to aim for utilizing the host region as a global production site.

Finally, this thesis finds that the empirical results for both periods are very similar, which suggest that the economic structure in western region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even though almost a decade passed since the western development program launched.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8년 마오쩌둥(毛澤東)사후 등장한 덩샤오핑(鄧小平)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와는 다른 중국을 건설하고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 줌으로써 인민들의 지지를 구하기 위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잘 사는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을 깨고 자본주의적 방식, 즉 중국적 특색을 지닌 시장경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중국을 경제적인 대국으로 건설하겠다는 꿈을 실현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부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특별행정구를 지정하였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서구의 자본주의 개념과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설계는 1990년대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후유증도 적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연안 특구 도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인하여 연안 지방인 동부와 내륙 지역인 서부간의 지역간 경제발전격차 및 소득격차는 증가되어갔고, 그로 인해 서부지역 인구의 동부지역으로의 유입이 점점 증가하여 급기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한 이러한 후유증은 중국의 사상적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열거하면 1989년의 천안문사건인데 이 사건은 바로 이런 사회적인 분배불공평으로 인한 폭발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덩샤오핑은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하여 선부론(先富論)이라는 이론을 내세워 인민들의 동요를 막고 혼란을 무마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하여 이제는 서부 쪽으로 개발을 진행하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 따라잡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현 중국의 계획이다. 장쩌민(江澤民)은 1999년 6월에 서부대개발정책을 제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의 70%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는 여기서 중국은 동부의 개발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동부의 개혁개방을 완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부와 서부를 잇는 경제권을 구축하여 전 중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서부의 현대화 없이는 중국의 현대화는 이룰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서부대개발을 추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느 국가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하나는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국가의 사회발전을 통해서 스스로 현대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서부대개발 프로젝트는 바로 첫 번째 방식인 정부 주도형이다. 그리고 이 서부대개발 정책은 단지 중국 현대화의 일환이라고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 이는 낙후된 서부의 개발이 민족간 갈등의 소지를 극복할 수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부 소속민족의 지역적 분리 독립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도농간, 계층간의 소득 격차 해소, 실업자 문제의 해결, 서부지역의 부존자원의 이용 및 중국사회의 안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석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동·서부지역의 경제력 격차가 도농간, 계층간에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부지역의 개발을 국가 정책목표로 삼아 2000년 3월 전국인대에서 서부대개발정책의 추진을 천명하였다. 여기서 서부지역에 대한 개발을 국가의 장기사업으로 삼아 중점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심각한 내수부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낙후한 서부지역의 생활수준을 향상을 시킴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표 1-1> 동·서부지역 간 경제력 차이(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9년 이전)

구분	동부	서부
면적	13%	56%
인구	41%	24%
GDP	65%	15%
연평균 성장율(79-98년)	12.8%	8.7%
인프라투자비율(79-98년)	60%	20%
사회복지시설	45%	20%
국유기업 기술인원	51%	17%
대외무역	99년 총수출입의 91%를 동부지역에서 달성 (광둥성<廣東省> 및 상하이<上海>지역이 전체의 약 50% 차지)	
외자도입	서부는 전체도입액의 5.42%에 불과	

주: 서부지역의 자료는 추가로 지정된 내몽고자치구의 광서장족자치구를 제외한 수
치임.

서부대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는 아마도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의 문제일 것이다. 폐쇄경제하에서 일국의 투자는 국내저축으로 재원을 조달한
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인프라 확
충, 산업육성, 인재육성이나 및 생태환경보호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 모두 거대
한 자금의 후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중앙정부의 투자나 중국국내의
민간투자만으로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자금을 모집할 수 방
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런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부대개발은 금세기 중국의 국가의 경제적 사회
적 목표 가운데 하나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또 하나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를 추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
을 가지고 있다. 서부대개발의 가장 큰 한계는 50년이라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때문에 서부대개발을 추진시키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으로 국채발행의 70%, 중앙정부 재정 예산의 70%, 외국정부 차관의 70%를 충당하면서까지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계획대로 50년 동안의 서부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규모가 약 1,300조 위안에 이른다. 물론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FDI의 유입액이 가장 많은 국가로 부상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이유로 중국 내 FDI의 지역적 분포나 투자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부대개발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원으로써 FDI에 주목하고, 서부지역에서 이루어진 FDI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와 도표분석을 통해 논점을 제기하고, 이 논점의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중국통계연감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론에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한 후, 제2장에서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발전과 FDI 현황을 분석한다. 제3장은 FDI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정리하며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중국 서부지역 FDI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행한다. 마지막인 제5장은 결론이다.

제2장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발전과 FDI 현황

제1절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환경과 시장특성

국내총생산(GDP)은 한 지역의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지표이다. 또한 1인당 GDP는 그 지역의 부유한 정도를 반영한다. 여기서는 서부대개발정책이 시작된 이후 서부지역의 GDP 변화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현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표 2-1> 서부지역의 GDP 및 1인당 GDP

	국내총생산액(GDP)(억 위안)				1인당 GDP(위안)		
	1999	비중(%)	2007	비중	1999	2007	증가율
내몽	1,268.2	1.5	6,018.8	2.4	5,350	25,092	369.0
광서	1,953.3	2.4	5,885.9	2.4	4,148	12,408	199.1
중경	1,479.7	1.8	4,111.8	1.7	4,826	14,622	203.0
사천	3,711.6	4.5	10,505.3	4.3	4,452	12,926	190.3
귀주	911.9	1.1	2,710.3	1.1	2,475	6,835	176.2
운남	1,855.7	2.3	4,721.8	1.9	4,452	10,496	135.8
서장	105.6	0.1	342.2	0.1	4,262	12,109	184.1
협서	1,487.6	1.8	5,369.9	2.2	4,101	14,350	249.9
감숙	932.0	1.1	2,699.2	1.1	3,668	10,335	181.8
칭해	238.4	0.3	761.0	0.3	4,662	13,836	196.8
영하	241.5	0.3	834.2	0.3	4,473	13,743	207.2
신강	1,168.6	1.4	3,494.4	1.4	6,470	16,860	160.6
서부	15,354.1	18.7	47,454.8	19.2	4,445	13,634	204.5
전국	82,054	100.0	246,619	100.0	6,551	18,665	184.9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년도.

2007년 중국 서부지역의 GDP는 약 4억 7,454억 8천만 위안으로 1999년의 1조 5,354억 1천만 위안에 비해 약 2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역의 GDP가 전국에서 접하는 비중은 2007년 약 19.2%로 1999년의 18.7%에 비해 약간 상승했다. 이러한 비중의 증가는 특히 내몽고와 협서성에서의 비중증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역의 1인당 GDP는 2007년 약 13,634위안으로 1999년의 4,445위안에 비해 약 204.5% 증가하였다. 이는 전국의 1인당 GDP 18,665위안의 약 73%에 해당한다. 1인당 GDP 증가율로 보면 귀주, 운남, 저장, 감숙, 신강의 5개 성은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나머지 7개 성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 서부지역의 비교우위

가. 풍부한 자연자원

서부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표 2-2> 참고). 서부지역에는 전국적으로 발견한 광물 160가지 종류가 모두 있으며 매장량은 티타늄, 동, 아연 등 30여 종의 광물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하고, 석탄은 38.6%, 석유는 41%, 철은 46.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와 수자원량은 서부지역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2> 동부 중부 서부 3대 지역의 자원현상(2007)

지역	면적 (km ²)	경지면적 (ha)	석탄 (%)	천연가스 (%)	연평균 자원량 (만톤)
동부지역	106	27339	44.3	10.3	5543
중부지역	167	36596	16.7	2.1	6424
서부지역	687	30433	39	87.5	15493
서남지역	237	11052	23.9	60.6	10869
서북지역	308	10913	15.1	22.8	2239

자료: 최병충, 「중국의 투자환경변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 수립」, 충주대 석사학위논문(2006), p.54.

서부지역은 발전이 늦고 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이지만 이처럼 풍부한 자연자원과 지역적 특색을 갖춘 산업분야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풍부한 자연자원은 서부지역에서 특히 비교우위에 있다. 서부지역 토지 면적은 전 국토의 56.8%이고 경작할 수 있는 토지자원은 전국의 57%, 산림면적은 전국의 31%, 천연초원 면적은 63%이다. 전국적으로 발견한 광물 160가지 종류가 서부지역에 있으며 매장량을 보면 티타늄, 동, 아연 등 30여 종의 광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양자강, 황하 상류의 풍부한 수력자원과 석탄자원, 서부·서남지역의 흑토, 칼슘인, 아연, 연,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자원은 전국경제발전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중국의 3대 천연가스 기지인 사천성 자치구의 경우 탐사된 천연가스 매장량이 중국 총 매장량의 약 61%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석탄매장량은 전국의 약 38.6%, 석유매장량은 전국의 약 20%이며, 개발할 수 있는 물 에너지량은 전국의 약 73%를 차지한다. 서부지역은 수력발전자원이 풍부하여 현지에서 사용하는 전력 외에 남는 전력으로 동부 연해지역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¹⁾

1) 최수용, 「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 pp. 21-23; 최병충,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수립」, 충주대 석사학위논문(2006), p. 33.

서부의 성, 시, 자치구는 각각 지역적으로 비교우위의 산업을 가지고 있다. 건국 이래, 특히 개혁·개방 이래 서부지역의 공업은 이미 중요한 공업기지와 특색산업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면 운남성(雲南省)은 전국의 유색공업기지로 유명하다. 운남성의 유색공업은 연, 아연, 동, 주석 위주의 공업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서부의 농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은천평원(銀川平原) 조방형(粗放型)으로 생산량이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성도평원(成都平原), 관중평원(關中平原), 은천평원(銀川平原) 및 신강 등의 주요지역의 평지와 평원지역은 수토(水土)조건이 좋고, 농업개발 역사도 길어 경작이 비교적 정교하며 농업 집약화와 생산수준도 높다.

나. 유리한 지리적 조건

서부지역은 토지면적이 전국 토지 총 면적의 56.8%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으로 여러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러시아, 몽고,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라오스 등 14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서부지역은 중국의 안전과 대내외의 활로 개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서부는 일찍이 실크로드 시기의 경제번영기가 있었고, 제2차 대전 시기에 중경(重慶)은 중국 국민정부의 임시수도(臨時首都)가 되었다. 서부지역이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亞太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문호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로 진출하는 가장 편리한 통로이다. 더 나아가서 대서양과 태평양 2개의 경제권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서부지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변 14개 국가와 비교적 활발한 변경무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변경무역구들이 자유무역구역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무역구들은 중국경제가 유럽, 중동,

서아시아 및 몽고, 러시아 등의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橋頭堡)로서의 중요성을 더하며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²⁾

다. 저렴한 노동력과 시장 잠재력

서부지역은 풍부한 저임금의 노동력이 있는 지역이다. 현재 동부지역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임금이 상승하였고 또 향진(鄉鎭)기업이 급성장하면서 동부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부경제는 발전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제, 특히 농촌의 향진기업이 낙후된 관계로 약 400만 명의 농촌 잉여 노동력이 일을 찾아 헤매고 있다. 서부지역의 인구는 약 2억 8500만 명으로 전국인구의 약 23%를 차지하는데 비해, 현재 서부지역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전국평균소득보다 20%정도 낮으며 농민 1인당 순소득은 전국평균보다 30%정도 낮아 공업 분야에 있어 대량의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서부지역이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면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빠르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³⁾

2. 서부지역의 제약요건

가. 기반시설의 미비

기반시설의 미비는 서부대개발계획의 추진을 제약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전체 국토면적의 56.8%를 차지하는 서부지역은 중국내에서 교통, 통신 등의 기초시설이 가장 발달되지 못한 곳이다. 중국 철도망의 경우 서부지역은 전국 수준에서 크게 미달하고 있다.⁴⁾ 또한 서부지역의 도로교통망도 매우 열악

2) 송재훈, 「중국 서부대개발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韓國北方學會論集》 제10호(2004), pp. 55-61.

3) 한국수출입은행 편 《中國 中西部 內陸省別 投資環境》(1997), p. 59.

4) 한국수출입은행 편 위의 책, p. 101.

한데, 노면의 등급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등급 밖의 도로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므로 서부지역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서부지역의 통신 산업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1998년 중국의 총 전화설치 수량은 이미 1억을 넘겨 세계적인 수준이며, 또 매년 2000만 대 씩 증가되는 추세로 전국평균 2.5가구당 전화가 한대 씩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서부지역은 평균 65가구당 1대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국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통신장비의 미비는 정보의 전달과 상품경제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열악한 자연환경

중국의 서부, 그 중에서도 서북지역은 고원, 강수량 부족함, 사막화 현상 등으로 자연환경 자체가 경제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서부지역은 해발 3000-5000m까지 이르는 고원이 펼쳐져 있으며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어 물 부족이 심각하여 사막화의 위협이 가중 되고 있다. 서부지역은 해발 1000-2000m의 높은 산과 험준한 고개가 있고 비의 양은 많지만 대부분 석회암, 돌산으로 흙과 돌이 섞인 산사태의 위협이 있고 산림의 훼손이 심각하여 장강하류에 침적물이 증가되어 농업발전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충분한 관개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자원의 낭비가 심각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중국의 황폐화된 면적은 이미 대륙면적의 27.3%에 달하며 그 중 80%가 중국의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몇 년간 토지 황폐화, 사막화는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약 200억 위안에 이른다. 그리고 서부지역은 수토유실(水土流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청해성(青海省) 장강유역 유실면적은 10.63만km²에 달하며 장강유역 총 면적의 63%를 차지하며 황하유역 황토고원지역 수토유실 면적은 45만km²로 총 면적의 71%를 차지한다.

이에 서부대개발 전략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중시하고 있으며 생태환경

의 정비사업의 하나로 초지(草地)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대한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 관리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크게 부족한 상태여서 효력이 의문시 된다고 있는 실정이다.

다. 시장경제의 미정착

서부지역은 지리적으로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여 경제의 폐쇄성이 더욱 심각하며, 상업화·시장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서부 내륙지역의 폐쇄성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특수한 역사적·민족적 배경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의식도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기질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서부지역의 공업주체는 국유기업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통적인 생산방식도 아직 이어져 오고 있어 주민들의 의식구조에는 상품경제에 대한 의식이 미약하다. 또한 경제가 폐쇄적인 변방, 산간의 사람들에게는 자급자족(自給自足)관념과 현세에서 부(富)를 추구하지 말아야 내세에 부(富)를 누릴 것이라는 많은 소속민족들의 종교적 관념이 지배적이다.⁵⁾ 이러한 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교류, 개인재산 축적욕구, 부를 추구하려는 의지와 적극성을 부족하게 만든다. 그 결과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을 어렵게 하고 경제발전을 억제하여 사회진보의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한다.⁶⁾

서부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 간부들의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 역시 문제가 많은데, 이들은 여전히 계획경제 시대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책상으로는 시장경제건설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계획경제체제의 관습이 몸에 배어 있다. 외지에서 부임해온 간부들의 경우도 해당 지역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실적을 세워 서부를 빠져 나가려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⁷⁾

5) 김용민,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중소기업진흥공단보고서(2001), p. 40.

6) 김미순, 「중국서부개발과 한국기업의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2002), p. 20.

7) 김미순, 위의 논문, p. 21.

제2절 중국 서부지역의 투자환경 및 FDI 현황

1. 중국 서부지역 FDI 현황

가. 중국의 지역별 FDI 현황

중국서부지역은 경제기반이 비교적 박약한 상태이고 개방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더구나 열악한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투자의 환경이나 시설이 뒤떨어져 있어 서부지역에 대한 FDI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상황이다.

하지만 서부대개발의 전략을 실시한 이후, 중국은 중앙이나 지방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FDI를 유도하는 정책이 제정됨에 따라서 투자환경이 날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개관적·주관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예상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동부지역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중국 서부지역에서도 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여 실시하였지만, 동부지역에서와는 달리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2-3>은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지역⁸⁾의 FDI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 보면, 서부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FDI의 절대금액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중면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91-07년까지 서부지역에 대한 FDI는 약 239억 달러로 전국의 7,715억 달러의 3.09%에 불과하며, 동부지역과 비교해도 동부지역 FDI 총액인 약 6,536억 달러의 3.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고찰해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이 비중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이후 조금

8) 중국의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진다.

<표> 중국의 지역별 성/시명

지역	省/市名
동부	북경, 천진, 하북, 요녕, 상해, 강소, 절강, 복건, 산둥, 광둥, 해남
중부	산서, 길림, 흑룡강,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
서부	사천, 중경, 귀주, 운남, 섬서, 감숙, 칭해, 영하, 신강, 티벳, 광서, 내몽고

씩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3> 1991-2007년 지역별 FDI 분포(실제투자금액)

단위: %, 억 달러

연도	지역합계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1	44.25	40.9	92.5	2.0	4.5	1.4	3.1
1995	372.15	326.4	87.7	34.3	9.2	11.5	3.1
2000	420.43	370.3	88.1	37.9	9.0	12.2	2.9
2001	483.13	424.4	87.8	44.4	9.2	14.3	3.0
2002	524.73	458.8	87.4	51.9	9.9	14.1	2.7
2003	529.40	458.1	86.5	59.2	11.2	12.1	2.3
2004	606.3	522.1	86.1	66.8	11.0	17.4	2.9
2005	724.06	535.6	74.0	48.3	6.7	19.4	2.7
2006	694.68	569.2	81.9	39.2	5.7	21.8	3.1
2007	835.21	656.4	78.6	54.5	6.5	36.8	4.4
91-07년	7715.38	6536.6	84.7	667.2	8.6	238.8	3.1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연도.

중국 상무부 통계를 통해 이를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2007년 말까지 서부지역 외국인직접투자의 상황은 여전히 좀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부지역 FDI의 경우 건수와 실질 이용액을 보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와 4.27%에 불과하다. 이는 2003년까지 서부지역이 차지했던 실제 FDI 평균 비중인 2.96%에 비해서는 상승했지만 2007년까지 4년 동안 겨우 1% 상승하는데 그친 것이다.(<표 2-4> 참고)

<표 2-4> 2007년 말까지 동, 중, 서부지역들 FDI를 도입상황

단위: 건, % 억 달러

지역구분	계약건수		실제투자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동부	525,998	83.18	6,635.5	83.91
중부	67,684	10.7	657.3	8.31
서부	38,604	6.1	337.4	4.27
기타지역	62	0.01	277.3	3.51
합계	632,348	100.0	7,907.5	100.0

자료: 중국상무부(商務部) 사이트 통계자료.

나. 국가/지역별 대 서부지역 FDI 현황

< 표 2-5>는 1982-2007년까지 서부지역에 대한 FDI 상위 15개 국가/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서부지역에 대한 FDI는 건수로는 16,859건, 계약금액으로는 약 517억 달러, 실제투자금액은 228억 달러로 나타났다. 실제투자금액으로만 보면 홍콩이 79억 5,000만 달러(35.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영국령 버진 제도가 28억 5,000만 달러(12.6%), 미국 27억 5,000만 달러(12.1%), 일본 10억 달러(4.5%), 싱가포르 9억 8,000만 달러(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5개 국가/지역에서 이루어진 서부지역에 대한 FDI 실제투자 금액은 약 194억 6,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서부지역에 대한 FDI의 약 90.1%를 점하고 있다.

<표 2-5> 1982-2007년 서부지역에 대한 상위 15위 국가/지역 상황

단위: 건, %, 억 달러

순위	국가/지역	계약건수		계약금액		실제투자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서부지역합계	16,859	100	516.5	100	227.5	100
1	홍콩	5,420	32.1	2,200.0	42.6	79.5	35.1
2	영국령 버진 제도	801	4.8	74.8	14.5	28.5	12.6
3	미국	2,045	12.1	67.1	13.0	27.5	12.1
4	일본	787	4.7	9.7	1.9	10.0	4.5
5	싱가포르	533	3.2	16.4	3.2	9.8	4.3
6	대만	1,985	11.8	17.6	3.4	8.7	3.8
7	프랑스	131	0.8	4.9	0.9	7.8	3.4
8	영국	285	1.7	7.7	1.5	6.9	3.1
9	모리셔스	67	0.4	9.9	1.9	5.7	2.5
10	開曼群島	92	0.5	7.0	1.4	5.4	2.4
11	호주	412	2.4	9.9	1.9	3.6	1.6
12	사모아	103	0.6	7.2	1.4	3.5	1.6
13	한국	558	3.3	7.9	1.5	3.4	1.5
14	독일	176	1.0	5.0	1.0	2.3	1.0
15	마카오	281	1.7	7.2	1.4	2.0	0.9
	15국가/지역합계	13,676	81.1	472.5	91.4	194.6	90.1

자료: 中國商務部, 外資公報 2008.

영국령 버진 제도로부터 서부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FDI는 건수로는 4.8%에 불과하나 금액으로는 12.6%를 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FDI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대만으로부터 서부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FDI는 건수는 11.8%를 점하여 비중이 높지만 금액으로는 4.5%를 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서부지역의 산업별·성/시별 FDI 현황

가. 산업별 대서부지역 FDI 현황

<표 2-6>는 1997-2007년까지 서부지역에 도입된 FDI의 산업별분포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이 기간 동안 서부지역에는 계약건수로는 16,243건, 계약금액으로는 약 600억 달러가 이루어졌으나, 실제투자금액은 약 202억 달러였다. 실제투자금액으로만 고찰해 보면 제조업이 약 50%를 점하였고, 다음으로 부동산업(17.9%), 전력가스 및 수자원의 생산과 공급(8.5%), 주민 서비스와 기타서비스업(6.2%), 농·림·목·어업(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부지역의 FDI도 중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산업별로 매우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제조업, 부동산업, 전력가스 및 수자원업과 기타 서비스분야와 관련한 제2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제1차 산업인 농·림·목·어업에서의 FDI 비중이 동부지역이나 중부지역보다 높고 그 수치가 3.6%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서부지역에 대한 FDI의 경우 자원 부존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반면에 서부지역의 제3차 산업의 경우는 FDI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1997-2007년도 서부지역 FDI 산업별 분포상황

단위: 개, %, 억 달러

산 업	계약건수		계약금액		실제투자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서부지역합계	16,243	100	600.9	100	202.6	100
농·림·목·어업	1,372	8.4	50.8	8.5	7.2	3.6
채광산업(采鑛業體)	501	3.1	30.5	5.1	2.9	1.4
제조업	8,802	54.2	275.3	45.8	101.0	49.8
전력가스 및 수자원의 생산과 공급	341	2.1	39.6	6.6	17.3	8.5
건축업	364	2.2	20.1	3.3	5.4	2.6
교통운송·창고저장과 우체운송업	191	1.2	9.4	1.6	3.4	1.7
정보전송·컴퓨터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기업	223	1.4	2.0	0.3	0.8	0.4
도매와 소매 무역	693	4.3	9.7	1.6	4.0	2.0
숙박 및 음식업체	295	1.8	6.6	1.1	1.7	0.8
금융업	8	0.04	0.4	0.1	0.1	0.1
부동산업	1,242	7.6	87.2	14.5	36.2	17.9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573	3.5	16.3	2.7	3.4	1.7
과학연구·기술 서비스 및 지질 탐사업	162	1.0	6.5	1.1	1.4	0.7
수리(水利)·환경과 공공시설 관리업	65	0.4	4.5	0.8	0.4	0.2
주민서비스와 가타 서비스업	1,245	7.7	32.8	5.5	12.6	6.2
교육	48	0.3	1.6	0.3	0.7	0.4
위생·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	32	0.2	2.6	0.4	0.9	0.4
문화·체육과 오락업	86	0.5	2.9	0.5	0.4	0.2

자료: 中國商務部, 外資公報 2008.

2007년에 서부지역에 대한 FDI의 산업별 비중만을 고찰해 보면 <표 2-7>와 같다. 여전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자세히 고찰해 보면 제조업을 비롯한 전력가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대신 제1차 산업인 농·림·목·어업과 채광업의 비중이 각각 6.0%와 9.0%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서부지역에 대한 FDI가 자원 부존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으며, 아울러 제3차 산업에 대한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에 현저하게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교통운송·창고저장과 우체운송업(4.6%), 정보전송·컴퓨터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기업(6.4%), 도매와 소매업(6.2%) 등이다.

<표 2-7> 2007년도 서부지역 FDI 산업별 분포상황

단위: 개, % 억 달러

산 업	계약건수		계약금액		실제투자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서부지역합계	2,150	100	131.0	100	36.8	100
농·림·목·어업	138	6.4	7.5	5.7	2.2	6.0
채(采) 광업	65	3.0	7.0	5.3	3.3	9.0
제조업	971	45.2	62.6	47.8	13.5	41.7
전력·가스 및 수자원의 생산과 공급	71	3.3	5.2	3.9	2.8	7.7
건축업	25	1.2	1.5	1.1	1.4	3.9
교통운송·창고저장과 우체운송업	31	1.4	1.6	1.2	1.7	4.6
정보전송·컴퓨터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기업	78	3.6	2.1	1.6	2.4	6.4
도매와 소매업	142	6.6	2.5	1.9	2.3	6.2
숙박과 음식업	111	5.2	3.1	2.3	0.3	0.9
금융업	2	0.1	0.2	0.1	0.1	0.3
부동산업	240	11.2	26.6	20.3	5.0	13.6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	175	8.1	6.6	5.0	0.7	1.8
과학연구·기술서비스와 지질 탐사업	28	1.3	1.1	0.8	0.5	1.2
수리·환경과 공공시설 관리업	12	0.6	1.2	0.9	0.2	0.7
주민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업	27	1.3	1.1	0.8	0.1	0.3
교육	6	0.3	0.2	0.1	0.2	0.5
위생·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	3	0.1	0.3	0.3	0.0	0.1
문체·체육과 오락업	25	1.2	0.8	0.6	0.2	0.4

자료: 中國商務部, 外資公報 2008.

나. 성/시별 서부지역 FDI 현황

서부지역 FDI에 대한 성/시별 분포상황을 보면 서부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서부지역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서는 일단 서부지역 FDI의 지역적 분포의 불균등과 집중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술하고자 한다.

<표 2-8> 2007년까지 서부 성/시별로 누적된 FDI 이용 상황

단위: 건, %, 억 달러

성(省)별	투자건수			계약금액			실제투자금액		
	건수	A	B	금액	A	B	금액	A	B
서부합계	39,203	100	6.1	879.5	100	5.3	322.3	100	4.1
광 서	9,291	23.7	1.6	194.9	22.2	1.3	96.2	29.9	1.2
사 천	8,061	20.6	1.4	171.8	19.5	1.1	67.9	21.1	0.8
섬 서	4,904	12.5	0.7	171.1	19.5	0.8	50.9	15.8	0.7
중 경	4,374	11.2	0.7	84.9	9.7	0.5	39.9	12.4	0.6
내몽고	2,548	6.5	0.4	87.3	9.9	0.5	20.1	6.2	0.3
운 남	3,130	8.0	0.3	64.7	7.4	0.4	18.6	5.8	0.2
감 속	1,820	4.6	0.2	31.2	3.5	0.1	8.0	2.5	0.1
귀 주	1,974	5.0	0.3	29.4	3.3	0.2	7.5	2.3	0.1
신 강	1,657	4.2	0.2	26.9	3.1	0.2	6.0	1.9	0.1
닝 하	862	2.2	0.1	22.5	2.6	0.1	4.5	1.4	0.1
칭 해	463	1.2	0.1	22.1	2.5	0.1	2.9	0.9	0.0
서 장	119	0.3	0.0	3.6	0.4	0.0	0.0	0.0	0.0

자료: 中國商務部, 2008年 外商投資資報告.

- 주: 1. A는 서부지역에서 차지 비중
2. B는 전국(全國)에서 차지 비중

위의 <표 2-8>은 2007년까지의 FDI 누계를 나타낸 것인데, 서부지역의 FDI

누계비중을 보면 투자건수는 전국의 6.1%로 계약금액으로는 5.3%, 실제투자금액은 4.1%의 비중을 점하고 있어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실제외자이용액을 보면 서부지역 각 성/시들 간에도 차이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서부지역에서 비교적으로 외자를 많이 이용한 지역들은 광서성(29.9%), 사천성(21.1%), 섬서성(15.8%) 및 중경시(12.4%) 이이며, 이 4개 지역들만으로 서부지역 전체 실제투자금액의 80%이상의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4개 지역이 서부지역 중에서 FDI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반해 서부지역에서 FDI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없는 지역은 바로 서장자치구 및 청해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 2개 지역은 2007년까지 누적된 FDI 실제투자금액의 비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2007년도의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서부지역의 각 성/시별 FDI의 분포도를 이용해서 서부지역 FDI의 지역별 상황의 변화추세에 대해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표 2-9> 2007년도 서부 각 지역별 FDI 상황

단위: 건, %, 억 달러

성(省)별	투자건수		계약금액		실제투자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서부합계	1,931	100	100.9	100	24.0	100
사 천	518	26.8	25.97	25.7	6.8	28.4
광 서	310	16.1	11.8	11.7	4.7	19.4
중 경	231	12.0	11.7	11.6	3.8	15.8
섬 서	262	13.6	18.5	18.5	3.4	14.1
운 남	203	10.5	7.9	7.8	2.7	11.1
내몽고	158	8.2	12.0	11.9	1.8	7.4
감 속	39	2.0	0.9	0.9	0.4	1.6
귀 주	54	2.8	2.2	2.2	0.2	0.8
신 강	101	5.2	3.3	3.3	0.2	0.7
닝 하	19	1.0	0.6	4.6	0.2	0.7
청 해	20	1.0	5.6	5.6	0.0	0.0
서 장	16	0.8	0.4	0.4	0.0	0.0

자료: 中國商務部, 2008年 外商投資資報告.

위의 <표 2-9>를 통해 2007년 한 해 동안의 서부지역에 대한 FDI의 실제투자금액 및 비중을 보면 사천성이 28.4%로 누계에서 1위였던 광서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광서성(19.4%), 중경시(15.8%), 섬서성(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남성에 대한 투자비중도 11.1%로 나타나 최근 들어 운남성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장자치구와 청해성은 여전히 FDI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범위에 보면 2007년까지 중국의 FDI는 주로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동, 중, 서부의 각 성(省)별로의 FDI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지역내에서 성별로 격차가 존재하고 집결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동부지역에서는 FDI가 주로 광둥성(廣東省), 강소성(江蘇省), 상하이(上海), 산둥성(山東省), 복건

성(福建省)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부지역에서 주로 호북성(湖北省), 호남성(湖南省), 강서성(江西省), 하남성(河南省)에 집중하며 분포하고, 서부지역에서 주로 광서성(廣西省), 사천성(四川省), 섬서성(陝西省), 중경(重慶)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투자금액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들이 동부지역에 집중되는 반면에, 2007년까지 실제 FDI 금액을 제일 적게 이용하는 5개성들은 모두 서부지역에서 집중되어 있다. 즉 서장(56만 달러), 청해(1.33억 달러), 영하(2.94억 달러), 신강(4.73억 달러), 귀주(6.31억 달러) 이들인데, 이 5개 성에서 도입된 실제투자금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지 0.25%를 차지하였다.

3. 대 서부지역 FDI 방식

가. 중국의 투자방식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방식은 합자, 합작, 독자의 형태로 나뉘어 진다. 中外合資 (Equity Joint Venture)는 1979년 7월1일에 공포되어 88년 9월 20일에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實施條例)에 근거하고 있는 투자방식으로 1979년 10월에 중국의 제1호 외국인 투자가 허가 된 이래 외국인 투자기업 중 60%를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중국투자방식이다. 합자투자방식은 중국 내의 중외합자기업을 설립하여 투자사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즉 외국투자자와 중국 내 투자 파트너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손익을 책임지며 공동으로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는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이다. 합자투자기업의 중지 시에는 중지시점의 기업 총 자산에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자산을 투자비율에 따라 쌍방이 배분한다.

中外合作 (Contractual Joint Venture)는 88년 4월13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合作法이라 칭함) 규정 및 95년 8월 7일에 국무원이 비준을 취득한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규칙(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實施規則)에 의하여 중외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즉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되 필요에 따라 또는 각자의 투자능력에 따라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로 제공되는 공업 소유권과 실물 등을 화폐나 주식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외국 측의 투자 지분에 일정한 한도를 두지 않는 방식이다. 합작기업의 종료 시에 기업의 총 자산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거친 후 잔여 자산은 약정에 따라 쌍방이 배분하며 이 경우 경영기간 중에 회수한 투자금은 제하고 배분한다. 이로 인해 투자사업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여러 가지 단점도 가지고 있다.

外商獨資 (Fully Foreign Owned Company)는 1986년 4월12일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과 90년 12월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 外資企業法實施細則)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100% 단독 투자하여 중국 내에 외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으로 외국기업, 경제단체, 개인 모두가 투자자로 될 수 있다. 독자투자기업의 명칭과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외자기업, 독자기업 심지어는 외국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독자투자에 의한 외국기업이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완전한 통제를 갖는 장점이 있고 합작파트너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외자회사의 경영이 단순한 면이 있다. 기업경영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독투자기업과 큰 차이 없고 중국내외에서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나. 서부지역 FDI 방식

1998년-2007년까지 중국서부지역에 누적된 실제외자금액 중에서 중외합자(中外合資)의 방식으로 이루는 FDI의 비중이 43.7%였고 중외합작(中外合作)의 방

식으로 이루는 FDI의 비중이 13.0%였으며 외상독자(外商獨資)의 방식으로 이루는 FDI의 비중이 41.4%였다.(<표 2-10> 참고).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의하면 서부지역 외상독자작(中外合作) 방식으로 이루어진 FDI의 비중이 중부지역보다 높고 그리고 외상독자(外商獨資) 방식으로 이루는 FDI의 비중이 중부지역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서부지역이 중부지역의 75.2%보다 그 시장의 완숙정도가 아주 낮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표 2-10> 1998-2007년도 서부지역 FDI 이용형식 상황

단위: 건, %, 억 달러

FDI방식	투자건수		계약금액		실제투자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서부합계	16,163	100.0	573.0	100.0	199.2	100.0
중외합자	7,070	43.7	175.5	30.6	87.0	43.7
중외합작	1,698	10.5	110.9	19.4	26.0	13.0
외상독자	7,452	46.1	283.4	49.5	82.5	41.4
외상주식제	33	0.2	3.3	0.6	3.7	1.9

자료: 中國商務部, 2008年 外商投資資報告.

2007년도 서부지역 실제투자금액 중에서 중외합자(中外合資)방식으로 이루어진 FDI 비중이 36.6%였고 중외합작(中外合作)방식으로 이루어진 FDI 비중은 7.2%, 외상독자(外商獨資)방식으로 이루어진 FDI 비중은 55.4%였는데, 위에 있는 표의 누적수치들과 비교해서 서부지역에서 외상독자방식으로 이루어진 FDI의 비중이 이미 중외합자방식으로 이루어진 FDI의 비중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외합작방식으로 이루어진 FDI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표 2-11> 참조). 이를 통해 서부지역의 시장 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FDI가 독자(獨資)방식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거역할 수 없는 추세
 세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2-11> 2007년도 서부지역 FDI 방식 상황

단위:개, %, 억 달러

투자방식	투자건수		계약금액		실제투자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서부합계	1,931	100	1,05.7	100	24.0	100
중외합자	750	38.9	36.2	34.3	8.8	36.6
중외합작	163	8.4	11.3	10.7	1.7	7.2
외상독자	1,010	52.3	57.8	54.7	13.3	55.4
외상주식제	8	0.4	0.3	0.3	0.2	0.8

자료: 中國商務部, 2008年 外商投資資報告.



제3장 FDI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FDI의 개념과 유형

1. FDI의 개념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투자는 투자기업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지배 및 통제권의 유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FDI는 단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투자 수용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⁹⁾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에서는 국내기업의 사업부문과 영업권 등을 외국인에게 매각한 경우도 FDI로 본다. 그 외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영지배나 통제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배당이익 또는 외국인 주식과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는 해외간접투자자로 볼 수 있다.¹⁰⁾

FDI는 기업의 목표인 이익과 성장을 전제로 투자기업이 외국의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지배 또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유형의 경영자원인 자본뿐만 아니라, 무형의 경영자원인 기술, 특허, 상표권, 경영 또는 마케팅 등 기업의 제반자원을 패키지(package) 형태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방식의 진출이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상품수출 위주의 국제간 교역에서 투자와 서비스의 자유화로 진전되고 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가 출범한 이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FDI를 통하여 판매시장의

9) 국내기업이 외국에 대해 수행하는 직접투자를 해외직접투자라 하고, 외국기업이 국내에 대해 수행하는 직접투자를 외국인직접투자, 즉 FDI라고 부른다.

10) 강태구, 《다국적기업경영론》, 서울:무역경영사(1994), p. 65.

개척, 필요자원의 확보, 생산요소의 이용, 무역장벽의 회피, 위협의 분산 등 전략적으로 국제경영을 행할 필요성이 증가해 왔다. 한편 투자유치국은 안정적인 외자조달, 생산증대, 고용 창출, 첨단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무역수지 개선 등을 위해 외국자본 및 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FDI에 대한 각국의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FDI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자본은 통상 그 출처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조달하는 내자와 외국에서 조달하는 외자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차관, 증권투자, 기술이전을 의미하는 외자(外資)는 한 국가의 잉여자본이 국경선을 초월하여 더 큰 수익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FDI는 일반적으로 간접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비교할 때 양자 모두 국제간의 자본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간접투자는 투자하는 기업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배당수익, 채권투자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을 바라고 투자를 하는 행위인 반면 직접투자는 투자하는 기업이 경영에 직접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직접투자는 경영자본과 기술의 유기적 이동을 통해 직접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또는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손 생획득 참여한다는 행하는 유기적공과는 구분되고,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신용제공의 형태로 일정 기간 내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는 해외차입과도 구분된다.¹¹⁾

2. FDI의 유형

FDI의 진출유형방식은 소유권 형태에 따라 단독신규투자자와 합작신규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기업이 현지에 생산시설을 신설하여 진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지의 기존기업을 국제인수 합병하여 진출할 수도 있다.¹²⁾

11) FDI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는 각국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한 지분 10% 이상의 투자를 기준으로 정의 되고 있다. 강태구, 위의 책, pp. 66-68 참조.

따라서 각각의 조합에 의하여 단독 신규투자, 단독 국제인수 합병, 합작 신규투자, 합작국제인수 합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단독 신규투자

단독 신규투자는 투자기업이 100%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로서 통상 이러한 경우를 완전소유자회사라 부른다. 단독 신규투자를 현지국에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새로운 관계회사를 설립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규투자라고 한다. 단독 신규투자방식의 해외시장 진출은 기업이 제품이나 기술 등의 강력한 독점적 우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또한 단독신규투자방식은 제품과 기술 그리고 노하우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고 자사의 경영방침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기술이나 노하우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 자본합작 신규투자

자본합작 신규투자는 현지국에서 사업을 수행 할 회사를 2개 이상의 기업이 소유하는 형태의 투자이다. 합작신규투자는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과반소유, 동등소유, 소수소유 등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회사에 대한 소유권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거나 또는 한 기업이 50% 이상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합작신규투자는 현지국에서 허용된 조건에 따라 조합, 법인 등의 여러 형태로 한 소진다. 그리고 합작신규투자에서 2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를 국제 컨소시엄(international consortium)이라 한다. 합작투자의 종류에는 원자재와 부품공급, 연구개발, 마케팅과 유통, 현지시장에 대한 상품공급을 위한 투자 등이 있다.

12) 최백렬, 《해외투자론》, 도서출판 대경(2002), pp. 26-50; 이찬구, 《해외직접투자과 다국적기업론》, 에코노미아(1990), p. 121.

그런데 합작신규투자의 종류는 원자재와 부품공급, 연구개발, 마케팅과 유통, 현지시장에 대한 상품공급을 위한 합작신규투자 등이 있다.

다. 국제인수합병(M&A)

국제인수는 현지국에 있는 회사의 상호와 자산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수행된다. 인수방식은 첨단기술, 특허권, 독점자산, 높은 시장점유율 등을 가진 현지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마찬가지로 국제인수도 단독국제인수와 합작국제인수로 구분하다.

제2절 FDI의 형태와 결정요인

1. FDI의 형태



가. 수평적(horizontal) FDI

수평적 FDI는 투자기업이 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투자형태이다. 이는 제품라인을 지리적으로 다각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형자산을 소유한 기업은 생산이 공동 관리통제 하에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평적 FDI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 수직적(vertical) FDI

이는 기업이 최종재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중간재를 생산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후방수직통합 해외투자(backward vertical foreign investment)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전방수직통합 해외투자(forward vertical foreign investment)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후방통합의 사례는 자원개발을 위한 현지에 투자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전방통합의 경우는 제품판매를 위한 자회사 설립과 같은 해외투자를 들 수 있다.

다. 다각적(conglomerate) FDI

이외에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형태의 FDI를 의미 한다. 이는 기업이 여러 분야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엑슨(Exxon)은 주로 석유, 천연가스개발, 정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미니 체인점망, 주요소, 구리광산, 전력공급사업 등에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다. 이것이 다각적 해외직접투자의 전형적인 예이다.

2. FDI의 결정요인

기업의 해외진출 동기는 매우 다양하여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자국내 투자에 비해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외국자본의 국내유치와 관련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따라 이론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 이론으로 대별 할 수 있다.

첫째, 기술수준이나 경영기법 등 개별기업의 특성과 형태를 중시하는 미시적,

기업경영학적 접근이론으로 이는 독과점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경쟁이 불완전한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행한다고 보는 이론. 둘째, 환율위험, 무역장벽회피 그리고 시장규모 등 입지상의 우위를 중시하는 거시 경제적 접근이론으로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외부성이나 사회적 비용의 시각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보는 이론. 셋째, 상기의 개별기업의 특성과 입지상의 우위를 함께 고려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유발하는 동기로서 기업내부의 비교우위를 해외의 입지우위요소와 결합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 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유치기업 또는 유치국(Host Country)의 입장에서는 투자재원조달, 산업구조고도화 및 근대화, 고용확대, 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들 수 있으며,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국 및 주변국의 판매시장개척 필요자원 확보 및 노동력 등의 생산요소 이용, 그리고 투자유치국의 행. 재정적 인센티브 활용 등을 꼽을 수 있다.

Behrmam(1972)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동기는 크게 시장지향(market oriented), 천연자원지향(resource oriented), 생산효율지향(efficiency oriented), 그리고 전략적 자산 및 능력습득지향(strategic asset or capability oriented) 등 4가지로 논의된다.

시장지향은 현지시장 소비자의 구매력과 관세 및 쿼터 등 수출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현지시장에서 직접조업활동을 위해 생산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이다. 생산효율지향은 현지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생산단가를 낮춤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천연자원지향은 천연자원을 현지에서 확보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투자를 의미하며, 전략적 자산 및 능력습득지향은 선진국의 첨단기술이나 선진기업의 핵심역량을 획득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투자를 말한다.

외국인이 현지국에 투자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는 투자결정요인별 이론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양수 외(2001)는 외국인이 제3국에 투자를 함에 있어 고려하는 입지요건을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은 저임금 노동력 확보, 생산성, 공장부지 및 임대비용, 현지금융가능성 및 비용, 사회간접자본시설, 시장규모, 시장성장 잠재력, 각종 인센티브(조세, 금융, 기타 인센티브)가 있으며 비경제적 요인은 정치적 안정, 행정절차, 정부정책 방향, 등 국가 전반적 요인 등을 포함한다.

<표 3-1>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요인		내용
경제 요인	현지시장 요인	현지수요의 크기, 소비자의 소득수준, 실질구매력 정도 등
	생산비용 요인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기술수준 요인	현지 산업기술 발전정도, 기술수준 등
	천연자원 요인	광물, 목재, 석유 등 천연자원 부족 정도 등
비경제적 요인		정치적 안정, 행정절차, 생활환경, 사회문화적 여건, 정부의 거시 경제 및 산업정책 방향(진입, 퇴출, 지분, 내국민대우)기업지배구조, 기업문화 등

자료: 이양수 외(2001)의 내용을 재구성.

경제적 투자결정요인은 한 국가의 경제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단시간에 변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그러나 비경제적 요인 중 인센티브를 비롯한 행정절차 그리고 생활여건 등은 그 지역의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와 보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투자결정요인을 학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2> 학자별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연구

연구자	투자 결정요인
Behrman(1972)	①시장지향 ②천연자원지향 ③생산효율지향 ④능력습득지향
Dunning(1980)	①시장접근성 ②생산요소비용 ③운송 및 통신비용 ④투자인센티브 및 정부개입 ⑤언어, 문화, 사업방식
Dicken(1994)	· 선진국 투자시: ①고급인력 ②기술, R&D ③고성장 잠재력 · 개도국 투자시: ①저임금 ②자원 ③부동산, 금융이익
Bachtler	①시장접근성 ②노동력 확보 ③인프라 ④재정지원 ⑤고급인력

자료: 임성훈, 「외국인투자정책의 전략적 접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9).

제3절 FDI의 경제적 효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host country)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과급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며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의 자본형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내투자에 비해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Caves(1971; 1974)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자원이전효과(resources transfer effects)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자본, 기술, 경영 등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제공하거나 이의 과급효과를 통하여 투자 유치국의 자본형성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둘째, 무역 및 국제수지효과(trade & balance of payments effects)로서 외국인 투자는 무역과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경제축진효과(competition effects)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거나 오히려 자신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경쟁을 저해 하는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Kojima(1973)는 투자유치국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수출지향적 외국인직접투

자의 경우 당해 산업의 비교우위가 강화되어 수출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투자유치국의 비교열위산업에 대한 반 수출지향적인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시장지배력만 강화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 수출 감소 및 경제성장 저해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Dunning(1988)은 이에 반해 Kojima의 분석이 외국인 투자를 결정하는 개별기업의 경제우위 등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으며 생산요소 배분 차원 이외에 규모의 경제, 제품차별화 등의 요인에 근거한 무역의 흐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Mansfield-Romeo(1980), Goldsbrought(1985)는 FDI가 개도국의 무역, 소득, 고용 및 기술수준에 효과를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며, Borenstein(1995)은 FDI가 투자유치국의 자본축적을 가져다주어 소득향상에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Balasubramanyam & Salisu & Sapsford(1996), Shan-Train & Sun(1999)은 개도국의 횡단면자료 (cross-section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수출주도적인 개방경제에서는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개도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 Burgstalldr & Saavedra-Rivano(1984)는 투자국이 투자유치국보다 기술력이 뒤떨어진 부문에 투자하는 경우 개도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Singer(1950)는 FDI가 자원지향형의 투자로 천연자원만을 확보키 위해 개도국에 진출한다면 개도국의 제조업 육성에 역행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방해한다고 지적하였다.

상술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FDI가 국내(현지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여러 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여기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경제성장의 촉진, 무역규모의 확대 및 국제수지개선, 고용창출, 외부효과 및 기술이전으로 나누어 고찰한다.¹³⁾

13) 송경석, 「외국자본유입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분석」, 《산은조사월보》 510, 한국산업은행 (1998), p. 26; 김철교·신우석,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제통상

1. 긍정적 효과

가. 경제성장의 촉진

FDI는 국내의 자본형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FDI로 인해 국내로 유입된 자본은 그 자본이 직접적으로 유입된 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FDI로 인한 관련 산업의 생산증가와 부가가치 창출은 국내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FDI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그 자체로 소득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중 상당한 부분이 재투자되어서 고정자본 형상에 기여하고 생산가능 곡선을 확장시켜 국내성장의 잠재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가져온다. 아울러 국내의 높은 교육수준, 기술수준 등으로 인하여 내부역량이 축적되어 있을 경우에는 투자자본과의 상호작용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나. 무역규모의 확대 및 국제수지개선

FDI는 경제의 중요한 대외거래 수단으로 교역을 활성화하고 무역의 이익을 확대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무역의 규모를 확대시킨다. FDI가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자본수지,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먼저 FDI와 무역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현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출을 늘리면 수출증대 효과를 가지며, 아울러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은 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투

연구》 제6권 1호, 한국국제통상학회(2001), p. 35.

자수용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수지 흑자의 효과를 가져온다.

한편 원자재나 기타 수입물의 수입, 기술도입에 따른 로열티지급 및 이익송금, 해외차입은 무역외수지에 적자를 가져와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현지생산이 본국으로부터 생산요소 등 원자재의 수입을 필요로 한다면 FDI는 오히려 수입의 증대를 불러일으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FDI가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투자유치국의 경제상황 및 정책, 국제금융 시장의 여건, 기업의 성양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장, 단기적으로도 그 효과가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 고용창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고 생산성은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하고자 하며, 이 경우 고용비용이 낮은 현지 인력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 잉여인력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실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FDI가 현지국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는 직접적인 창출효과와 간접적인 창출효과로 나누어진다.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지국가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현지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유발되는 효과이고, 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유통, 분배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유발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다시 전방고용창출효과와 후방고용창출효과로 나뉘는데, 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유통과 분배에 관련해 현지기업의 고용이 확대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중간재, 원자재 등 부품을 공급하는 현지기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을 말한다.

FDI가 가지는 현지국의 고용창출의 정도는 국내적 상황,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방식, 현지화의 정도, 그리고 투자의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방식이 노동집약적일 수록 가능한 직원을 현지인으로 채용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크며, 또한 현지국의 생산부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정도가 클수록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FDI의 형태를 사장접근형과 해외생산거점형으로 나누어 볼 때 해외생산거점형의 고용창출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FDI가 현지국의 고용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현지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기존 현지기업의 도산등을 통해서 대량의 실업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

라. 외부효과

FDI는 경쟁의 강화를 가져와 투자유치국의 경제에 외부효과를 파급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이득을 초래한다.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투자 대상국 시장의 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고유의 자산을 가지고 투자대상국 시장에 진입한다.

다국적기업의 진입으로 시장경쟁이 강화되면 국내기업은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국적기업과 경쟁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은 생산, 공정개선이나 기술수입을 통해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기업도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다른 다국적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결과적으로 외부효과의 확산과 파급을 촉진한다.

마. 기술이전

FDI의 외부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전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 기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하여 기업의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로 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이전의 형태에는 외국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하는 직접적 형태와 FDI를 통한 국경 간 자본이동 과정에서 선진국의 첨단기술이 인적자본에 체화된 형태 또는 시설 등 자본재에 체화된 형태로 개발국에 이전되는 간접적인 형태가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 유치국은 큰 비용부담이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직접, 간접적으로 도입된 기술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 다른 기업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외국기업이 현지시장에 익숙한 현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보다 우월한 기업특유의 우위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파급효과는 국내부품이나 설비를 공급하는 과정이나 국내 하청 기업들에 대해 기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방연계효과와, 생산된 제품이 중간 형태로 다른 국내기업의 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방연계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FDI는 현지기업의 R&D활동이나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인적자원에 체화된 형태로도 그 파급효과를 가진다.

2. 부정적 효과

FDI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중에는 긍정적인 측면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다. 여기서는 FDI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자본의 유출문제, 적대적 M&A의 우려, 투자유치국의 관련 유치산업에 대한 타격의 문제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유증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자본의 유출문제

FDI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유입보다 유출이 커지게 되는데 이 경우 실질이익의 해외유출, 세금의 회피 등으로 인해 정상이상의 높은 이익과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나. 적대적 M&A의 증가

적대적 M&A가 본격적으로 허용되면 국내 우량기업들의 인수가 빈번해지게 된다. 그들은 우세한 자금력과 기술력,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앞세워 국내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확대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자금난으로 핵심사업 및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국내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기술이전이나 협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국내 유치산업의 발전 저해



투자유치국이 집중적으로 발전 육성시키려는 유치산업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산업을 가진 FDI를 받아들이게 되면 국내 유치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국적기업의 기술력 및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이 투자유치국에 있는 유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급속히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투자유치국의 유치산업 기업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 시장장악의 문제

주요 업종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향후 이들에 의한 독과점적 횡포나 반대로 채산성이 떨어질 경우 생산설비를 빠르게 철수해 버리

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들은 국지적인 생산요소 시장의 변동에 따라 생산입지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철수하고 난 후 지역경제의 공백에 대한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¹⁴⁾

제4절 FDI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이 절에서는 실증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 서부지역의 FDI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서부지역에만 특화된 실증분석이 드물어 중국 전체의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와 중국 전체에서 나온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원익(2006)은 세계 각국들이 대 중국 직접투자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갖는지를 검토했으며, 특히 2001년 말에 중국의 WTO가입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투자결정요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1998년부터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까지를 하나의 샘플기간으로 하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를 또 다른 샘플기간으로 나누어 같은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설명변수는 지역의 총도로와 철로 길이의 합, 전년도 명목임금, 각 성시(省市)의 GDP, 해당지역의 연간 총수입액, 지역의 피고용자 중에서 고중이상 학력자의 비율, 경제특구와 연해개방도시를 활용하여 FDI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검토하였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는 지역의 인프라시설을 대리하는 총 도로와 철도길이의 합과 그 성시(省市)의 GDP, 연간 총 수입액, 경제특구(SEZ)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WTO 가입을 기준으로 제1샘플기간(1998-2001년)을 활용한 결과 임금, 성시(省市)의 GDP, 연간 총 수입액, 피고용자 중 고학력자 비율, 경제특구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샘플기간(2002년, 2003년)의 추정결과는 pooled OLS의 경우 인프라 시설을 나타내는 총

14) 방영민, 《국제투자론》, 법문사(1996); 김준동,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7), p.81.

도로와 철도길이의 합과 성시(省市)의 GDP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랜덤 효과(Random effects)추정방법에 의한 결과는 제1샘플기간에 유의한 것으로 되어 있던 임금, 연간 총 수입액, 피고용자 중 고학력자비율 및 경제특구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오직 성시(省市)의 GDP만이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만수(2002)는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에 한국기업의 대(對)중 투자 전략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 위해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기에 한국기업의 중국 각 성(省)별 투자 결정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분석의 기간을 1993-2002년까지로 하고,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의 대(對)중 투자가 큰 부침을 겪었던 1998년 또는 1999년을 경계로 두 시기로 나누어 투자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설명변수로는 해당 지역의 매년 경상 GDP, 제조업 연평균임금, 피고용자 중 고졸이상의 비중, 단위 면적당 도로의 비율, 각 성의 주요 개발구 수를 이용하여 성(省)별 투자액을 살펴보았다. 1994-1997년 자료에 대한 추정(a)에서는 전 산업과 제조업 임금수준의 계수에 대한 추정치는 기대한 대로 음의 값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추정(b)자료에서는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수준에 대한 계수는 추정 a, b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양질의 노동력의 존재를 나타내는 고졸 이상의 비율에 대한 계수의 유의성은 추정(a), 추정(b)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2000년 이후 그 유의성이 약간 떨어져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향상되었고 인력이동의 유연성도 커졌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노동자 수준의 인력공급은 모든 지역에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위면적당 도로율은 추정(a)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추정(b)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투자가 내수시장을 좀 더 고려하게 됨에 따라 물류 여건이 점차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각 성(省)의 정책 환경을 표현하는 개발구의 수에 대한 추정 계수는 추정(a)에서는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 높게 나타났다으나 추정(b)에서는 제조업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정책 환

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비록 경제기술개발구 등으로 입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제조업에서는 개발구 등을 통한 투자유치가 아직까지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여타 산업에서는 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 중에서 대 중국 투자의 결정요인으로서 저임금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발견은 특히 비용절감형 투자에서 내수지향형 투자로 대 중국 투자 전략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최근의 지적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 변화이다.

문승래(2001)는 1979년부터 1999년까지 21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OLS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로 국내 총생산(1990년 불변가격으로 측정된 CPI적용), 명목환율, 제조업 명목임금비율, 중국의 무역 가중평균 관세율, 실질경제성장율, 더미변수, 국내실질이자율(1년 미만의 기술개조 및 고정자산 대출이자율, CPI적용)을 가지고, 정치적 안정을 나타내는 해는 0,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해는 1인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액(1990년 불변가격으로 측정된 CPI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979-1999년 기간동안 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들은 광활한 내수시장, 빠른 경제성장을 및 값싼 임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관세율도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이자율, 수입액, 국내의 정치적 안정과 관련된 더미변수 등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치 않았다.

강설영(2003)은 1983년부터 2003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 국내투자 및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경제성장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고정투자자산, 환율, 외국인직접투자, 이전기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설명변수로 하여, GD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내투자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 환율(명목), 차관 증가치(국내신용의 대리변수), 이전기의 고정투자자산을 설명변수로 하여, 고정투자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 환율, 국내소비가격지수, 이전기의 수출을 설명변수로 하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 환율, 국민소득, 이전기의 수입을 설명변수로 하여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로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외국인 직접투자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국내투자도 증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의 유입에 의한 자본 수지의 개선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커다란 공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1997)은 한국을 제외한 외국의 대(對) 중국직접투자추정식과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 추정식을 설정하여 대(對)중국 투자결정 요인을 살펴보았다. 한국을 제외한 외국의 대(對)중국 직접투자 추정식은 1984-1996년을 표본기간으로 하여 환율, 소비자 물가지수(1985=100), 국내총생산, 도시노동자 평균임금, 도시지역 실업지수(만 명), 연도별 기간추이가 외국인 직접투자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로는 우선 한국을 제외한 외국의 대(對)중국 직접투자 추정식에서는 환율요인은 유의성이 매우 높아 외국기업의 기술, 경영노하우 등을 제외한 단순 자본투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봄으로 외국의 대(對)중국 투자기업들은 환율의 변화에 대해서도 재무적 관점에서 상당한 고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물가가 안정되면 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국내 총생산의 경우 상당히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외국기업들이 대(對)중국 투자에 있어 중국의 시장규모를 염두에 두고 투자한 것임을 반영한 것이라도 볼 수 있다. 임금은 그다지 투자의 결정요인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 추정식에서는 1989-1996년을 표본기간으로 하여 환율, 소비자 물가지수(1985=100), 국내총생산, 도시노동자 평균임금, 도시지역 실업지수(만 명), 연도별 기간추이가 외국인 직접투자액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로는 임금과 실업률이 주요 결정요인이며, 환율과 물가지수는 거의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중국 서부지역 FDI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본 장은 서부지역에 진입하는 기업들의 자료를 가지고 서부지역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실증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가설의 설정

앞에서 고찰했듯이 FDI의 목표와 동기는 투자기업과 현지국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FDI를 크게 시장추구형 FDI와 생산효율추구형 FDI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가지 형태의 직접투자이론을 기초로 하여 서부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시장추구형 직접투자에 의한 가설



시장추구형 직접투자는 투자 상대국의 국내시장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서 투자 상대국의 시장규모가 크면 클수록 직접투자는 증가한다고 본다. 여기서 시장규모는 소득의 크기, 개방의 정도, 인구 및 노동력, 도시화의 정도 등을 지표로 삼는다.

첫째, 한 다국적기업이 투자의 입지선정을 할 때 고려하게 되는 요인 중에서 무엇보다도 투자지역의 시장규모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투자를 하는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지역의 시장규모가 클수록 다국적기업이 그 지역에 투자할 더 큰 동기부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FDI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개방화의 정도를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즉 시장개방정도가 크면 클수록 시장의 환경이 개선되어 사업하기 용이할 것이므로 투자의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구 및 노동력의 풍부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인구의 크기 및 노동력은 소득수준과 더불어 구매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시장의 형성 및 확대를 목표로 하는 다국적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인구와 노동력 요소, 특히 노동력 요소는 생산효율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에게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의 투자형태에 모두 작용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도시화정도도 다국적기업에게 해외투자를 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도농간의 경제력 격차가 큰 만큼 도시의 구매력은 농촌지역의 구매력보다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의 도시화 규모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효과를 추구하는 다국적기업들은 그 지역에게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실증분석에는 시장추구형 직접투자에 의한 다음의 가설들을 테스트하고자 한다.

가설 1: 서부지역 내의 시장규모의 크기가 클수록 서부지역의 FDI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서부지역 내의 시장개방의 정도가 개방될수록 서부지역의 FDI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서부지역 내의 인구 및 노동력이 풍부할수록 서부지역의 FDI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4: 서부지역 내의 도시화정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서부지역의 FDI는 증가할 것이다.

2. 생산효율추구형 직접투자에 의한 가설

한편 생산효율추구형의 직접투자는 상대국 및 지역시장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투자 상대국과의 임금 등 국제적 요소가격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직접투자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거나 본국으로 역수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생산효율은 임금수준,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도, 인적자본의 풍부정도, 시장의 시장화 정도 등을 지표로 삼는다.

첫째, 기업이 해외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투자지역의 임금수준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통상적으로 서부지역 투자의 많은 부분이 저임금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저임금이 투자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도이다. 투자 대상국 및 지역의 산업구조는 다국적기업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대상지역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산업의 보완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생산효율추구형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투자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도는 FDI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셋째, 투자 상대국 및 지역에서 인적자본이 풍부한 정도는 생산효율을 추구하고 부가치를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국적기업들의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인적자본의 풍부도와 수준은 높은 기술을 갖춘 노동자, 숙련노동자 및 고급관리자의 활용을 통해서 다국적기업의 생산효율에 대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대상국 및 지역의 인적자본 상황은 생산효율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넷째,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의 민영화정도가 투자 대상국 및 지역의 투자환경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어느 투자 대상국 및 지역의 민영화정도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무역거래의 환경수준이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효율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투자입지 결정의 선정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섯째, 투자 대상국 및 지역의 인프라시설 역시 생산효율을 추구하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생산효율을 추구하는 FDI는 현지시장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투자 대상국과의 임금 등

국제적 요소가격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거나 본국으로 역수출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역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생산효율추구형의 직접투자에 의한 다음의 가설들을 테스트하고자 한다.

가설 1: 서부지역 내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서부지역의 FDI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서부지역 내의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높을수록 서부지역의 FDI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서부지역 내의 고급인재자본이 풍부할수록 서부지역의 FDI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4: 서부지역 내의 시장 민영화정도가 높을수록 서부지역의 FDI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5: 서부지역 내의 인프라시설이 발달되어 있을수록 서부지역의 FDI는 증가할 것이다.

제2절 실증분석모형 및 자료

본 실증분석에서는 서부지역에 있는 각 12개 성, 자치구, 시의 1990-2007년까지 총 18년 동안 서부지역에 투자된 FDI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부지역의 FDI 대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STATA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증분석을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서부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0년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서부대개발 이후, FDI와 관련하여 서부지역의 구조적 변화

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본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는 중국통계연감자료와 중국상무부(商務部)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FDI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모형은 다음 식과 같다.

$$FDI_{i,t} = c_{i,t} + \alpha_1 GRDP_{i,t-1} + \alpha_2 OPEN_{i,t-1} + \alpha_3 INST_{i,t-1} + \alpha_4 MARK_{i,t-1} + \alpha_5 MAN_{i,t-1} + \alpha_6 WAGE_{i,t-1} + \alpha_7 COMP_{i,t-1} + \alpha_8 INFRA_{i,t-1} + \alpha_9 URBAN_{i,t-1} + \epsilon_{i,t}$$

(단, $i = 1, 2, \dots, N$; $t = 1, \dots, T$)

상기 추정식에서 FDI는 종속변수로 외국다국적 기업의 대 중국서부의 실제 투자액이고, α 들은 각 설명변수들의 계수 값을 의미하며 i 와 t 는 서부지역의 각 지역(성, 시, 자치구)과 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외의 설명변수들은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상기 식에서 설명변수들의 값이 1기 이전기($t-1$ 기)의 값들을 가지는 이유는 종속변수와 설명변수간의 인과관계의 혼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성의 t 기의 GRDP를 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 종속변수인 t 기의 FDI가 t 기의 GRDP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정결과로 나타난 계수 값이 FDI가 GRDP에 미친 영향을 반영한 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방도(OPEN), 산업구조 고도화정도(INST), 민영화 정도 등의 대부분 설명변수 역시 이론적으로는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동시적으로 상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동시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1기 이전의 값들을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설명변수를 시차변수화 함에 따라 설명변수가 원인이고 종속변수가 그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표 4-1> 사용변수의 설명

변수의 유형		변수 설명
종속변수		FDI(해외직접투자): 서부 12개 지역의 년도별 실제외자투자금액(억 위안화)
설명 변수	시장 추 구 형	(㉠) GRDP(시장규모): 서부 12개 지역의 년도별 국내총생산(억 위안화). (㉡) URBAN(도시화 정도): 서부 12개 지역의 총 인구수 중에서 도시호적인 가진 인구의 비중(%) (㉢) OPEN(시장개방화 정도): 서부 12개 지역의 수출입액이 GRDP에서 점하는 비중(%) (㉣) MAN (노동력자원): 서부 12개 지역의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율(%)
	생 산 효 율 형	(㉤) WAGE(임금수준): 서부 12개 지역의 1인당 연평균임금수준(위안화) (㉥) INFRA(인프라 구축): 서부 12개 지역의 도로연장이 지역의 총면적에서 점하는 비중(%) (㉦) INST(산업구조 고도화 정도): 서부 12개 지역의 제2, 3산업의 총생산액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COMP(인적자본): 서부 12개 지역의 10000명당 대학교 재학인수(명) (㉨) MARK(시장의 민영화정도): 서부 12개 지역의 비국유기업의 고정자산투자총액이 고정자산투자총액에서 점하는 비중(%)

- 주 1) 외자투자금액이란 2가지의 형식이 있는데 계약외자투자금액과 실제외자투자금액이다. 본 연구는 실제외자투자금액으로 사용하였다.
- 2) 위에 있는 각 변수들의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FDI(실제외자투자금액)와 OPEN(시장개방화 정도)에서는 미국 달러로 되어 있는 것을 각 년도의 환율계산을 통해서 위안화의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 3) 상기 설명변수의 각 자료는 각 성별 2000년 가격기준으로 실질변수로 전환하였다.

제3절 실증분석 기술통계

중국서부에 있는 12개 성·시, 자치구에 대한 90년-2007년까지 각 다국적 기업들의 직접투자에 관한 자료의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여기서 사용된 추정치는 216개로 이는 중국서부지역에 있는 12개 성·시, 자치구의 18년 간의 자료이다.

<표 4-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량 (90-2007년)

Variable	평균 Mean	평균오차 Std. Dev.	극소 값 Min	극대 값 Max	관측치수 Obs
FDI	17.6	24.8	0.1	148.3	216
OPEN	9.9	5.06	3.6	58.8	216
GRDP	1433.0	1569.6	26.3	9920.0	216
INST	76.1	7.8	49.1	89.4	216
MARK	35.8	16.1	2.4	71.9	216
MAN	9.9	3.8	2.4	18.8	216
WAGE	9070.2	6819.1	1804.4	44582.2	216
COMP	47.7	49.0	8	268	216
INFRA	17.26	16.7	1.5	127.7	216
URBAN	29.84	9.0	14	52.3	216

다음 <표4-3>는 본 연구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 변수들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4-3>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 (90-2007년)

	OPEN	GRDP	INST	MARK	MAN	WAGE	COMP	INFRA	URBAN
OPEN	1.000								
GRDP	0.085	1.000							
INST	0.009	0.346	1.000						
MARK	0.135	0.720	0.530	1.000					
MAN	-0.079	-0.697	-0.499	-0.639	1.000				
WAGE	0.141	0.396	0.594	0.480	-0.523	1.000			
COMP	0.264	0.602	0.654	0.627	-0.615	0.721	1.000		
INFRA	0.022	0.517	0.336	0.603	-0.434	0.299	0.524	1.000	
URBAN	0.101	0.002	-0.018	0.221	0.067	-0.028	0.032	0.075	1.000



제4절 실증분석 결과

<표 4-4>는 중국 서부지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모형 추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9년 이후 서부지역 대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1999년 전후로 서부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여 1990년에서 1999년까지 그리고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시대를 구분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또한 성별, 연도별 자료인 패널데이터 자료이므로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개별 성/시의 특성을 고려한 Fixed Effect 모형과 그렇지 않은 Random Effect 모형을 가정하여 각각 추정하였다. 그리고 Hausman 테스트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두 모형 중에서 Fixed Effect모형의 결과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ixed Effect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한다.

먼저, 1990년대의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GRDP는 산업구조고도화정도 및 만명당 대학생 수의 계수 값은 정(+)¹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금수준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시화 정도, 시장개방도, 인구증가율, 도로연장으로 나타난 인프라 구축정도, 민영화 정도 등에 대한 변수에 있어서는 가설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므로 가설을 지지할 정도의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각 변수 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GRDP는 그 지역의 소득 및 시장의 크기를 대변하는 변수로 정의(+)²유의한 값을 가졌다는 것은 해외직접투자 기업은 서부지역의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동기를 가지고 투자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장지향형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의 시장규모를 보여 주는 도시화 정도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는 해외 기업이 도시화 정도 보다는 성 전체의 GRDP를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지역에 투자하는 직접투자 기

업은 도시지역을 대상시장으로 삼기보다는 성 전체 혹은 그 이상의 시장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4> 실증분석 결과

설명변수	1990-1999		2000-2007	
	Fixed Effect 모형	Random Effect 모형	Fixed Effect 모형	Random Effect 모형
A. 시장추구 형으로 이룬 각 설명변수				
GRDP	0.01*** (3.59)	0.007*** (3.35)	0.02*** (7.56)	0.01*** (8.53)
URBAN	-0.85 (-0.67)	-0.16 (-0.83)	0.24 (0.50)	1.06** (2.72)
OPEN	0.09 (0.61)	0.46*** (2.63)	-1.61** (-2.22)	-1.62*** (-2.79)
MAN	-0.68 (-0.97)	-0.51 (-1.00)	0.39 (0.34)	-0.17 (-0.20)
B. 생산효율성 형으로 이룬 각 설명변수				
WAGE	-0.002*** (-3.52)	-0.0006 (-1.03)	-0.0001* (-1.81)	-0.0001** (-1.39)
INFRA	0.47 (0.50)	-0.15 (-0.51)	0.007 (0.05)	-0.11 (-0.86)
INST	1.08*** (3.13)	0.23 (1.07)	1.87* (1.68)	1.26* (1.88)
COMP	1.12* (1.78)	0.07 (0.30)	-0.01 (-0.14)	0.01 (0.19)
MARK	0.28 (1.42)	0.64*** (3.48)	0.12 (0.40)	-0.11 (-0.51)
R ²	0.52	0.39	0.72	0.69
X ²	-65.34* (-1.76)	-17.95 (-1.12)	-146.54* (-1.75)	-110.88*** (-2.18)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 수준을 의미함

임금은 FDI와 부의(-)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서부지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시장추구형 목적뿐만 아니라 저임금 등의 생산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 또한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저임금을 추구하려

는 기업들이 서부지역에 입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부지역 FDI 기업은 기술지향적 고도화된 산업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 지역의 산업구조고도화 역시 FDI와 정의(+)-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 역시 그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등의 생산효율을 고려하여 입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모형의 추정결과 그 지역의 인재를 구하는데 있어서 만 명당 대학생 수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90년대 이전 서부지역은 대학생 비율이 아주 낮은 지역이 많아 대학생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GRDP, 산업구조 고도화정도 등이 FDI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방화 정도 및 임금수준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상기 결과 중에서 GRDP, 산업구조 고도화 정도 및 임금수준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잘 뒷받침한다. 반면에 개방화의 경우,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과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그 외의 실증분석에서 유의성을 갖지 못한 변수들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제대로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개방화와 FDI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 배치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시장과 교류가 활발할수록 국제적인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진다. 즉 해외로의 수출입 정도가 높다는 것은 해외 수출의 전진기지로서 좋은 지역이고 또한 해외로부터의 원활한 부품 및 원재료의 조달 등이 용이한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개방도가 높을수록 해외기업은 해외에서 생산해서 현지에 수출이 용이하므로 굳이 현지에서 직접투자 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 즉 수출할 것인가 혹은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할 것인가라는 상호 대체적인 의사결정 하에 놓여 있는 기업은 개방도가 높은 지역에는 해외직접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기 보다는 수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결국 개방도가 높은 지역은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보다 중요한 점은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글로벌 생산기지를 목표로 하는 해외기업이라면 개방도가 높은 지역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고 단순히 현지의 내수시장만을 공략하려는 의도를 가진 기업은 오히려 개방의 정도가 높을수록 수출을 통해 현지 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과 실증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서부지역은 2000년대 이후에도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고도화된 기술을 가진 기업의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서부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서부지역의 경제구조가 눈에 띄게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대학생 수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해외 기업이 대학생 수에 그다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각 성별 대학재학생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어느 성에서든 필요한 수의 대학졸업 정도의 학생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서부지역에 대한 FDI의 결정요인에 대해 시장추구형 FDI 가설과 생산효율추구형 FDI 가설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서부의 12개 성/시에 대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18년간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서부대개발 계획이 실시되는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서부대개발 계획 실시 이전(1990-1999)과 이후(2000-2007)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서부대개발계획의 실시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아울러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부대개발계획이 실시되기 이전인 1990년대의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GRDP는 산업구조고도화정도 및 만 명당 대학생 수의 계수 값은 정(+)¹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임금수준은 부(-)²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시화 정도, 시장개방도, 인구증가율, 도로연장으로 나타난 인프라 구축정도, 민영화 정도 등에 대한 변수에 있어서는 가설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므로 가설을 지지할 정도의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둘째, 서부대개발계획이 실시되고 난 후인 2000년대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GRDP, 산업구조 고도화정도 등이 FDI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방화 정도 및 임금수준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상기 결과 중에서 GRDP, 산업구조 고도화 정도 및 임금수준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잘 뒷받침한다. 반면에 개방화의 경우,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과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그 외의 실증분석에서 유의성을 갖지 못한 변수들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제대로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대체로 유사한 결

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서부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서부지역의 경제구조가 눈에 띄게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실증결과를 통해 본 논문의 제2장에서 확인한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제2장 서부지역 FDI의 현황분석에서 이미 분석한 것처럼, 현 단계에는 서부지역에서 유치하고 있는 FDI의 산업부문은 제1산업의 농목업의 가공, 및 제2산업의 제조업 및 광물, 자원의 개발 등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를 가진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 서부지역은 원래 지리적으로 불가피한 제한 요소가 있으므로 서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FDI의 여러 가지 특징은 위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잘 나타나게 된다. 즉 현재 서부지역에서 투자되고 있는 FDI의 산업구조는 제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를 가진 투자가 별로 없고, 주로 제1차 산업의 농목업의 가공 및 제2차 산업의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는 낮은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현지시장 및 중국 국내시장의 공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서부지역에서 이루어진 FDI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FDI는 시장 추구형의 시각에서 출발하면 서부지역 내의 시장규모 및 서부지역 내의 도시화의 정도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며, 또한 생산효율로 추구형의 시각에서 출발하면 자연스럽게 서부지역 내의 임금수준 및 인프라구축의 정도에 대한 관심 높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부대개발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앞으로 서부지역에 투자되는 FDI의 질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 현재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변수들도 향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chunli shen, 《中國地域差異的經濟分析》, 人民出版社(2006).
- 강태구, 《다국적기업경영론》, 서울: 무역경영사(1994).
- 강한균·서민교, 《다국적기업경영론》, 도서출판 두남(1999).
- 鞏封震, 《中國西部大開發 第1階段的觀察》,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5).
- 龔新思, 《中國西部經濟增長中構造問題研究》, 經濟科學出版社(2005).
- 國務院, 《國務院은 西部大開發에 대한 정책조치의 通知》, <國務院 2003-33號>.
- 國務院, 《新中國五十五周年統計年鑑》(各 年度).
- 김준동,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7).
- 나카가네 카즈지 著, 이일영·양문수 譯, 《중국경제발전론》, 나남출판사(2001).
- 박인성 외, 《중국경제지리론》, 한울아카데미(2000).
- 박인성, 《中國의 國土開發政策에 관한 研究》, 국토개발연구원(1998).
- 방영민, 《국제투자론》, 서울: 법문사(1996).
-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 共編, 《中國의 西部地域 投資環境 및 進出方案》(2001).
-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서울: 나남(1997).
- 陽 聰, 《西部投資環境研究》, 民族出版社(2007).
- 劉秀蘭, 《西部地域產業構造問題研究》, 西南交通大學出版社(2005).
- 유희문 외, 《현대중국경제》, 서울: 교보문고(2000).
- 李善同, 《西部大開發과 地域協調發展》, 商務出版社(2003).
- 이찬구,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론》, 에코노미아(1990).
- 임반석, 《중국경제: 두 가지 기적과 딜레마》, 서울: 해남(1999).
- 任宗哲, 《中國西部經濟發展報告書》, 중국: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7).
- 최백렬, 《해외투자론》, 서울: 도서출판 대경(2002).

한국수출입은행 編, 《中國 西部地域의 투자환경과 투자사례》(2001).
한국수출입은행 編, 《中國 中西部 內陸省別 投資環境》(1997).
한국수출입은행 編, 《중국서부지역 현지법인 경영현황 및 투자환경》(2001).
한국수출입은행 편, 《중국서부대개발과 우리기업의 진출방향》(2001).
황의각, 《중국의 지역경제》, 삼영사(1998).

2. 학술지 논문

賈 偉,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실증분석」, 숭실대학교 대학원(2007).
國務院, 「서부대개발 “11.5” 계획」, 人民網(2006).
김도훈, 「외국인직접투자와 기술흡수능력의 상호작용이 유입국의 경제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2006).
김동하, 「중국 서부대개발의 정책이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 《외대중국연구》 제27권 (2001), pp. 487-508.
김명식, 「中國의 地域開發戰略에 관한 研究」,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8).
김미순, 「중국서부개발과 한국기업의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2002).
김병호, 「중국 서부대개발의 정치, 경제적 의의」, 《평화연구》,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2000), pp. 89-131.
김영국, 「중국서부대개발과 한국기업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2007).
김용민,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중소기업진흥공단보고서(2001).
김재기, 「중국의 민족문제와 서부대개발 정치경제적 배경과 딜레마」, 《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2001), pp. 139-168.

- 김정계, 「중국 서부대개발의 전략적 배경과 문제점」, 《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2001), pp. 49-81.
- 김철교 · 신우석,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제통상연구》 제6권 1호, 한국국제통상학회(2001), pp. 31-52.
- 김현정, 「중국 투자환경 변화요인 분석」, 서강대학교 대학원(2008).
- 박광득, 「서부대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대한정치학회보》, 제10권 2호, 대한정치학회(2001) pp. 19-44.
- 박상수, 「중국의 서부대개발에 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2002).
- 박상수, 「중국의 지역경제발전과 서부지역의 투자환경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12권 제2호(2001), pp. 159-201.
- 박정목,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의 정치적 함의」, 동아대학교 대학원(2003).
- 송경석, 「외국자본유입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분석」, 《산은조사월보》 510, 한국산업은행(1998), pp. 26-50.
- 송재훈, 「중국 서부대개발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韓國北方學會論集》 제10호(2004), pp. 55-61.
- 이재유 · 허홍호, 「중국의 지역발전 격차와 서부대개발」, 《신아세아》 제11권 제4호(통권 41호), 신아세아연구소(2004) pp. 138-167.
- 이중희, 「중국의 서부대개발 국가발전전략의 변화와 한계」, 《현대중국연구》 제4집 2호 현대중국학회(2001) pp. 43-81.
- 최백렬,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제8권 제1호, 한국국제 경영 관리학회(2004), pp. 199-219.
- 최병충, 「중국의 투자환경변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전략적 대응방안 수립」, 충주대 대학원(2006).
- 최수용, 「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1994).
- 陳紹雄, 「FDI 對中國經濟發展作用的經濟學分析」, 西南大學(2005).

사이트 참고:

國務院西部地域開發領導小組辦公室 (<http://www.chinawest.gov.cn>).

中華人民共和國國土資源部 (<http://www.mlr.gov>).

中國西部信息網 (http://www.ci_w.com).

中國統計信息網 (<http://www.stats.gov>).

中國西部開發網 (<http://www.chinawestweb.com>).

中國人民日報網 (<http://www.peopledaily.com.cn>).

서부대개발 전략의 목표와 관련 정책 (<http://www.kiep.go.kr/>).

西部大開發的冷思考 (http://www.100paper.com/100paper/jingjixue/difangzhanlue/2007062539535_4.html).



국문초록(요약)

본 연구는 서부지역에 대한 FDI의 결정요인에 대해 시장추구형 FDI 가설과 생산효율추구형 FDI 가설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서부의 12개 성/시에 대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18년간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서부대개발계획이 실시되는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서부대개발 계획 실시 이전(1990-1999)과 이후(2000-2007)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서부대개발계획의 실시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 지를 아울러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부대개발계획이 실시되기 이전인 1990년대의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GRDP는 산업구조고도화정도 및 만 명당 대학생 수의 계수 값은 정(+)^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임금수준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시화 정도, 시장개방도, 인구증가율, 도로연장으로 나타난 인프라 구축정도, 민영화 정도 등에 대한 변수에 있어서는 가설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므로 가설을 지지할 정도의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둘째, 서부대개발계획이 실시되고 난 후인 2000년대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GRDP, 산업구조 고도화정도 등이 FDI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방화 정도 및 임금수준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상기 결과 중에서 GRDP, 산업구조 고도화 정도 및 임금수준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잘 뒷받침한다. 반면에 개방화의 경우,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과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그 외의 실증분석에서 유의성을 갖지 못한 변수들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제대로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서부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서부지역의 경제구조가 눈에 띄게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